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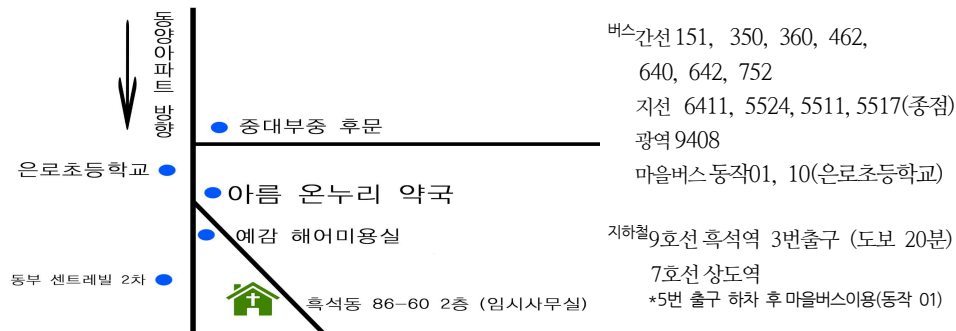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주일 오전 11:00	부서예배 및 모임 (주일)			
저녁기도회	월-목요일 저녁 8: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0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1: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청 소 년 부	오후 1:00	마리아회	오후 1: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1:00
	*월삭새벽예배 6:00			에스더회	오후 1:00
셀 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파 송 선 교 사	강성규 (러시아)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선 교 사	양병순 (카자흐스탄)
			전임전도사 권 인 혁		이금주 (M국)
			협력전도사 오 호 남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관 리 장 로	손석규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김 대 희			(2호) 세종 선한교회
		박 희 태			신원섭 목사
		조 윤 익			
		한 배 선			

선한교회 사무실 오시는 방법



06987 서울 동작구 서달로 110-10 2층 (흑석동 86-6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 5:16)

Walk By The Spirit

실 천 사 항 선교사의 삶 제자삼기(1인) 성경강론(1장)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암 송 구 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엡 4:15)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19장 (통일찬송가 44장)	
교	독 문	교독문 34번(시편 81편)	
찬	양 과 경 배	183장 (통일찬송가 172장)	
예	배 기 도	한배선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씀 봉 독	갈라디아서 6:18	
설	교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김현석 김희상 김석범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주를 위한 이곳에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예배장소 : 교회 사무실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말	씀 봉 독	언약궤를 멘 제사장 (여호수아 3장)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1. 성 전 건 축 기 도	조속한 준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매 일 성 경 강 론	매일 저녁 8시 성경 강론과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보에 성경 강론을 위한 참고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용과 참여를 바랍니다. (월~금 주5일)	
3. 정 오 기 도 회	매일 점심(12시30분)에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이용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체크하고 계시는 "기도문 읽기표"를 입당예배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 배 준 비 안 내 및 정 리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고 청소 및 정리는 2시 30분 부터입니다. 오늘은 안양셀 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안산셀 입니다. (정리 후에는 식당문을 잘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성경강론 범위						
9/24	9/25	9/26	9/27	9/28	9/29	9/30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5장	
※매일 저녁 기도회 : 월~목 저녁 8시(교회 사무실), 금요일 8시 30분(서울남부교회 4층)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당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	---

찬송 : ‘예수 따라가며’ 449장(통 377)

본문 : 사도행전 27장 9~26절

말씀 : 본문에 보면 죄수 신분의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향하던 중 그레데섬의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번 항해에서 화물과 우리 모두의 생명까지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뜻밖의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배에 탄 사람들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봅시다.

첫째,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가 왜 바울의 말에 따르지 않았습니까. 본문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세상의 지식과 경험, 재력 있는 자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선장은 오랜 기간 바다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몰랐고 사도 직분을 가진 바울을 몰라봤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급기야 바다에 짐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풍랑만 계속 일어나서 구원의 소망조차 갖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풍부한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이들이 선택한 결과는 결코 완벽할 수도, 완전할 수도, 최선일 수도 없습니다.

셋째,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바울이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14일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암흑 속에서 불안해하던 이들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어 방향을 잃고 떠밀려 다니던 배가 육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배에 탔던 276명 모두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과 사상과 이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내가 최고”라며 잘난 체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세상 경험이나 지식이나 육신에 속한 자의 말은 궁극적인 정답도, 해법도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좇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오늘 본문처럼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제목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갈6:18)

서론

그리스도인들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

- (1) 은혜의 의미: 아무 공로 없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선물
- (2) 은혜를 받는 통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 교회...
- (3) 은혜와 은사의 문제

본론

2. 교훈

- (1)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인식하라.
- (2) 은혜를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
- (3) 은혜를 세상에 전달하라.

결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히 거하며 살며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감격적으로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한배선 장로	김대희 장로
헌 금 위 원	김현석 김희상 김석범	김현석 김희상 김석범
안 내	안양셀	안산셀

매일 성경 강독		요단강 도강 준비	날짜 : 9월 25
찬양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찬송가 428장/통일 찬송가 488장)		
통독	여호수아 1장		
본문 내용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의 언약대로 그와 백성이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적들이 그들을 대적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어디로 가든지 행통할 것을 거듭 확신시키십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널 것을 준비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선봉에 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그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한 것같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생각해보기			
1	요단강 도하 명령 (1) 모세의 죽음으로 40년간의 출애굽시대가 마감되고 이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하는 가나안 정복 시대 시작됨 (2) 하나님께서 요단강 도하 명령과 함께 옛날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하심으로써 용기를 북돋아 주심 (3)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해 권면하심: ①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②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4)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고 백전 불굴의 정신으로 싸워야 한다.		
	2 여호수아의 출전 명령과 세지파의 맹세 (1) 하나님께 진군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을 위한 출전 명령을 내림 (2) 요단 동편 세 지파(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가나안 정복 사업에 동참할 것을 지시함 (3) 그들은 여호수아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맹세하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기원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말로 여호수아를 격려함 (4) 성도들은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도자와 함께 공동체적 연대 의식을 가져야 한다.		
핵심 단어	눈의 아들 여호수아 - 여호수아의 인적 사항이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로서, 모세 사후부터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의 주역으로 활동하다가 정복 전쟁 후 에브라임 산지 딘밧세라에 거주했으며 그곳에서 최후를 맞았다. 그의 이름은 원래 '구원'이란 뜻의 '호세아'였으나(민13:8), 모세가 그 이름에 '여호와'의 생략형 명칭을 덧붙여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 칭하게 되었다(민13:16).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로서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Jesus)' 곧 '구주'가 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슬프다 아리엘이여!”
찬양과 기도	수많은 무리들 / 인애하신 구세주여(279장/통 337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어거스틴은 413년부터 「신국론」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세상에 두 개의 도성(도시라기보다는 공동체)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지상의 도성’(civitas terrena)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civitas Dei)입니다. 전자는 자기 사랑으로 영원한 진리를 외면한 채 소멸해 버릴 가치에 집착하는 자들이 만든 이 땅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듯 착각하면서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교만한 마음으로 전쟁을 일삼습니다. 후자는 지상에서 인기 있는 가치들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며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땅의 감정적인 것들을 사용하지만 평화와 삶의 완성을 바라보며 순례자처럼 살아갑니다. 어거스틴은 신을 멀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설립된 도성과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 설립된 도성이 서로 갈등하는 가운데 역사가 이뤄지는데, 종말에 지상의 도성은 심판을 면치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한 진리 안에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때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성 거민으로 시작했다 지상의 도성 거민들의 유혹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거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두 도성 가운데 어느 곳에 거주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말씀 나누기	이사야 29:1~8	
묵상포인트	마음 없는 헌신, 회개와 순종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습니다. 유다에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을 낮추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사랑의 매입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친 열방을 더 호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인간의 계략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영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위기의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친히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요?(5~8절)	
적용하기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런 소망으로 견뎌 낸 일이 나 지금 견뎌야 하는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믿음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위기 상황에서 먼저 주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을 주시고,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소망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출애굽 2세대의 할례		날짜 : 9월 29일	
찬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36장/통일 찬송가 493장)			
통독		여호수아 5장			
본문 내용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온 2세대는 광야 생활 중에 할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정착한 지금, 그들에게 할례의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은 이제 유월절을 맞습니다. 백성이 그 땅의 열매를 먹기 시작하자 만나가 그칩니다. 이후에는 다시 만나가 내리지 않았으며 백성은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한편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여호와와 군대장관을 만납니다.			
생각해보기					
1		길갈에서의 할례와 유월절 (1)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소식을 들은 가나안 거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힘 (2)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3)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이므로 어떠한 대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2		길갈에서의 할례와 유월절 (1) 정복 전쟁에 돌입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 (2) 길갈에 진을 친 백성들이 출애굽 후 처음으로 할례를 시행함 (3) 출애굽 후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만나가 그침 (4) 부정한 마음을 모두 배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다짐의 표를 행해야 함 (5)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핵심 단어		만나가 그쳤으니 -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었던 하늘의 음식이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으로 무교병을 만들어 먹자 더 이상 내리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땅의 소산을 먹게 된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하늘의 양식을 내려줄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은 만나가 우연적이거나 자연 현상에 의해서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이적으로 내렸다는 점을 증거해 준다. 그리고 이는 자연적인 방법, 즉 노동으로 식량을 얻을 수 있을 때는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해 식량을 얻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도 교훈해 준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여리고 정탐	날짜 : 9월 26일
찬양	믿는 사람 들은 주의 군사니 (찬송가 351장/통일 찬송가 389장)		
통독	여호수아 2장		
본문 내용	여리고를 탐지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유숙하던 중 적발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를 알게 된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탐꾼을 숨겨 주고,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라합의 안전을 약속합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온 두 정탐꾼은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이스라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생각해보기			
1	정탐꾼과 라합 (1)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가 되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 정탐꾼 2명을 보냄 (2) 잠입한 사실을 알고 잡으려온 여리고 사람들 손에서 정탐꾼들을 재치 있게 구해주는 기생 라합 (3) 라합의 행위가 자기 민족에게는 이적행위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결단적인 신앙 행동이 되어 온 가족이 구원받고 자신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 (4)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때로는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다.		
2	두 정탐꾼의 보고 (1) 정탐 일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결과를 보고함 (2) 자신들이 당했던 일과 가나안 땅 거민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고함 (3)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보고를 함: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라”(24) (4)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된다.		
핵심 단어	붉은 줄 - 먼저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보증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즉, 라합에게 있어 구원의 보증물은 '붉은 줄'이었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보증물은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바로 오늘날 인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의 보증물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라합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붉은 줄이 있는 집 안에 있어야 했고, 노아 시대 사람은 노아 방주 안에,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해야만 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임을 깨달아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결코 어리석게도 이를 배척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가 287장/통일 찬송가 205장)
통독	여호수아 3장
본문 내용	백성을 성결케 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요단 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그와도 함께하심을 백성이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강에 발을 담그자 흐르던 물이 멈춥니다. 제사장들이 강물이 마른 땅에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밟고 요단 강을 건너갑니다.
생각해보기	
1	요단강 도하 명령 (1) 백성들에게 스스로 경계하도록 지시함 (2)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행하게 함 (3) 교훈: ①하나님만 바라보고 한결음씩 그 뒤를 따라감 ②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함 ③지도자가 먼저 앞장서야 함 (4)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됨
핵심 단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 강을 도하하는 날이 다가오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여기서의 성결은 구체적인 행위로서의 성결, 즉 의복을 세탁한다든가, 여인을 멀리하는 행위, 또는 의복을 갈아입는 것 등과 같은 외부적 성결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내부적 성결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으로는 그러한 준비를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결은 영적 성결, 즉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의 약속을 신뢰하여 계명에 순종하는 자세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성결을 명령함으로써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에 대비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선민 이스라엘이 지녀야 할 자세를 고취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는 당신의 이적을 행하기에 앞서 성결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이적의 조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 하셨으며, 요단강을 멈추는 이적은 그 일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의 성결한 삶 역시 구원의 방편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자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찬송가 260장/통일 찬송가 194장)
통독	여호수아 4장
본문 내용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서 큰 돌을 하나씩 취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열두 개의 돌을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가 제사장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요단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심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가에 진을 치고, 여호수아는 요단 강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쌓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기념합니다.
생각해보기	
1	요단강에 세운 기념비 (1) 요단강 바닥에서 24개의 돌을 취하여 12개 돌은 가나안 입성 한 후 첫 영지인 길가에 기념비로 세우고 또 12개 돌은 요단강 한 가운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섰던 자리에 기념비를 세움 (2)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 막을 수 없었다. (3) 여호와와 손이 강하심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자(24).
핵심 단어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 이 표현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용된 것으로, 자녀 교육, 혹은 신앙 전승을 위하여 이스라엘 가정이 지켜야 했던 규례의 한 모습을 보여 준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전승을 위해 유월절 기념 행사 때마다 부자가 문답하는 형식으로 유월절의 참의미를 되새기고, 또한 이스라엘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감사하였다. 즉 이때 아들은 신앙의 도리를 묻고, 아버지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정착 등 모든 역사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증거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요단강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 또한 빠질 수 없는 신앙 전승 내용 중의 하나였다. 한편 이러한 이스라엘의 신앙 전승 모습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비록 교육의 방법과 도구는 변한 다 할지라도 그 내용과 중심 사상은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함을 보여 준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